



# 청 풍 명 월 의

강 오 식

자유기교가

충청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제천시  
북쪽으로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동과  
남은 경상북도와 경계지점에 소백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산맥에 장막처럼 둘  
려싸여 해발 300m 이상의 고원분지에 위  
치한 제천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이다.  
시의 남쪽으로는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  
강이 흐르고 있어 먼 옛날 한강을 따라 들  
어온 사람들이 남긴 선사 유적이 점말동굴  
등에 남아 있다.

제천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의  
‘겨드랑이’ 쪽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  
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지대에 든다. 제천  
지구는 시 단위로 따질 때는 “지세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조선 시대의 정인지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충주 지구보다 평  
균 높이가 100m나 높다.

청풍명월의 본고장인 이 곳은 선사시대  
로부터 남한강을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문물이 번성했던 유

서 깊은 고장이다. 오늘의 제천 땅은 고구  
려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내토군 또는  
대제군이라고 불렸으며, 이어서 신라가 차  
지했을 때에는 내제군이라고 불렸다. 고려  
시대에는 제주군이라고 불렸고 그 뒤에 원  
주군에 딸렸다가 조선 태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제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영토 분쟁이 가  
장 치열하게 펼쳐졌던 까닭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적 요소들이 오늘날 민간신앙  
에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내  
륙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한말에  
는 을미의병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일제시  
대를 거치면서 육로교통의 활성화와 더불어  
태백선, 충북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사  
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현재  
인구 15만 여명의 제천시는 천혜의 자연환  
경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의 문화·관광도시  
로 거듭나고 있다.



제천시 모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의림지가 언제 방죽을 쌓아 만든 저수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조선시대의 「성종실록」을 보면 고려시대에 그 둑을 쌓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하여 삼국시대나 그보다 더 오랜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또 쌓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장도 달라 악성 우류이라고 하기도 하고 박의림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위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사백년 전쯤에 이곳에서 관찰사 일을 보았던 정인지가 고쳐 쌓게 했다고 하며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손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 1913년과 1948년, 1960년에 크게 손질을 했다. 달리 마땅한 수원이 없는 곳이어서 이 저수지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 온 셈이다.

의림지는 제법 큰 저수지이다. 제방 둘레가 2km, 면적 15만 8,677m<sup>2</sup>, 저수량 660만 m<sup>3</sup>, 수심은 8~13m의 대수원지로서 몽리면적 289정보의 농지를 관개한다. 또한 그 기슭에 있는 영호정, 경호루 같은 정자들과 몇 백년 묵은 소나무 숲과 어울려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밖에 없는 경승지 노릇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림지가 일찍이 바깥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이곳에 사는 붕어와 순채 때문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고원 분지에 자리잡은 제천은 하루에도 날씨의 덥고 추움의 차이가 심해서 유난히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의림지에서 나는 붕어의 창자를 회쳐서 먹음으로써

이 병을 다스렸으며, ‘약붕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또 어린잎을 사람이 먹기도 하는 순채는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물풀로서 여름이면 물가를 온통 짙은 자색의 꽃으로 뒤덮이게 했다. 그러나 위생 관념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말라리아에 걸리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또 약이 좋아져서 이곳의 붕어를 약으로 찾는 사람이 없어졌으며, 순채는 1913년에 방죽을 고쳐 쌓을 때에 거의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

여름철에는 물과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의림지는 겨울철에는 빙어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쟁반에 담아 내오는 팔딱이는 빙어를 산채로 초고추장에 찍어먹는데, 그런 것을 애써 찾아가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옷이나 얼굴에 초고추장이 튀는 별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의림지는 척박한 제천 땅과 바쁜 생활에 지친 제천 사람들에게 한 가닥 쫄얼이 된다.

청풍 문화재단지는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남한강 유역의 일부 저지대가 수몰되자 주변의 문화유산을 이전해 놓은 곳이다. 즉 정부의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으로 충주 다목적댐 공사가 1978년 6월 3일부터 시작하여 1985년 10월 17일 준공되었다. 이와 함께 수몰지역내의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1983년부터 3년여에 걸쳐 1만 6천평의 부지위에 원형대로 이전 복원해 1985년 12월 23일 청풍 문화재단지를 개장하였다.

이곳에는 청풍 한벽루, 금남루, 청풍 금병헌, 청풍 팔영루, 청풍 석조여래입상, 청

풍 향교, 제천 황석리 지식묘군, 황석리산성, 망월산성지, 응청각, 도화리·황석리·후석리의 고가 등이 이전 복원되어 있다.

문화재단지에는 보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9점 및 생활유물 2천여 점이 보관되어 명실상부한 옛 남한강 상류의 화려했던 문화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보물 제528호인 청풍 한벽루는 정면 4칸, 측면 3칸 짜리 누각으로 청풍현이 군으로 승격되자 세운 것이다.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건립되었으며 팔작지붕으로 누각에는 우암 송시열, 곡운 김수증의 편액과 추사 김정희가 ‘청풍 한벽루(淸風寒碧樓)’라 명한 액자가 있다.

청풍 문화재단지는 청소년들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으며, 지금은 8만 5천여 평의 규모로 확대 개발되어 제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문화제는 직접 생활하였거나 사용하던 문화재로써 타 지역의 문화제와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천 청풍호반은 충주호 뱃길 중 가장 산자수려한 곳으로, 이곳에는 수경분수가 설치되어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진다. 청풍호반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충북 북부권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수경분수는 청풍호반의 중심에 위치하여 청풍 문화재단지,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교리관광지가 마치 병풍을 친 듯 수변을 경계로 접하고 있다.

한편 청풍호반은 인기리에 방영된바 있

는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졌다.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세트장에는 그 당시의 포구를 재현하였으며 수군 관아와 민가, 망루, 왕건 배가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 지역의 명소로 널리 알려진 ‘박달재’는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을 갈라놓은 험한 고개를 말하는데 천등산 박달재라고도 한다. 그 옛날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울고 넘는 박달재’란 대중가요로도 유명하다. 해발 453m, 길이 500m에 이르는 박달재는 예로부터 제천에서 서울에 관행길이 나 있던 곳이다. 첩첩산중 크고 작은 연봉이 4면에 에워싸고 있어 험준한 계곡을 이룬다.

박달재는 거란군을 물리친 전승지로 전해온다. 즉 고려 23대 왕인 고종 3년(1216)에 10만의 거란군이 고려를 쳐들어 왔을 때 박달재에서 김취려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쳤으며, 고종45년(1258년)에는 몽고군을 제천, 충주, 청풍의 별초군이 함께 물리친 전승지이다. 그 당시 거란군의 포로를 지금의 공전리 장터 부락에 전답을 주어 살게 한 것을 ‘거란장’이라 부르고 있다.

제천시에서는 박달도령과 금봉낭자를 캐릭터화 하여 “박다리와 금봉이”로 명명하여 각종 캐릭터상품 개발 및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개입구에 일주문을 건립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누구나 찾아오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승지로 조성하고 있다. 고개 정상의 휴게소에서 동동주와 도토리묵으로 향토색 짙은 미각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에는 청소년수련원과 박달재자



연휴양림 등 천혜의 자연공간이 통나무집, 황토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금수산은 제천시 수산면과 단양군 적성면의 경계를 이루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해발 1,016m의 명산이다. 월악산 국립공원 최북단에 위치하여 산 이름이 그러하듯 가을이면 비단에 수를 놓은 듯 고운 단풍과 산세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용담폭포(30m), 선녀탕과 한 여름 삼복 더위에 얼음을 볼 수 있는 한양지(얼음골)에서 발원하여 능강리를 거쳐 청풍호로 흘러드는 능강계곡의 절경 9곳과 망덕봉, 신선봉, 미인봉, 동산, 까치성산 등은 기암과 절경으로 등산인의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탐험가 허영호와 최중열을 배출한 제천에서는 매년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산악의 메카로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산을 바짝 끼고 청풍호반의 푸른 물이 감싸고 돌기 때문에 주변 경관 또한 일품이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백운산”이었으나 조선조 중엽 단양군수로 있던 퇴계 이황선생이 너무도 아름다운 가을경치에 감탄하여 “금수산”으로 개명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금수산 정상부의 원경은 길게 누운 임산부의 모습인가 하면 사자머리 형상 같기도 하고 남쪽 능선에서는 뽕죽 봉으로 보이는 등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봄의 철쭉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 등으로 계절에 따라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 🍂

